독일어와 한국어 문장부호 비교

문장부호 콤마/쉼표 ‘,’를 중심으로

이재호*

Ⅰ. 들어가는 말
Ⅱ. 독일어와 한국어 문장부호의 기능변화와 분류
Ⅲ. 독일어 콤마의 변천과정
Ⅳ. 독일어 콤마의 기능과 유형
Ⅴ. 독일어와 한국어의 문장부호 콤마/쉼표 ‘,’의 용법 비교
Ⅵ. 나오는 말

〈국문초록〉

문장부호는 문자와 마찬가지로 표기 체계의 한 구성 요소이며 문장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讀解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일련의 부호들이다. 현재 사용되는 독일어와 한국어의 문장부호가 형태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번역시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독일어와 한국어의 개별 문장부호들은 그 쓰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보다 철저하게 비교·분석해야만 한다. 문장부호 중 독일어의 콤마와 한국어의 쉼표가 문장의 이해를 돕고 의미 결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부호이다. 본 연구는 독일어 콤마와 한국어 쉼표의 기능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연구결과가 궁극적으로

* 숭실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독일어 교수-학습에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핵심어: 콤마/쉼표, 문장부호, 문장부호의 용법, 외국어 교수-학습, 콤마의 기능

Ⅰ. 들어가는 말

글쓴이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를 일목요연하게 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대 독일어에서는 문장부호(Satzzeichen), 대소문자 표기(Groß- und Kleinschreibung)와 같은 자소적 도구들이 사용된다. 또한 고딕체, 이탤릭체와 같은 서체나 문단 들여 넣기 등을 이용하여 문장 내의 특정 부분을 강조할 수도 있다. 위의 표기 보조수단들은 텍스트의 이해를 돕는 공통적인 기능적 특성을 갖는다. 특히 문장부호는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되는 부호로서 텍스트를 구분하여 읽는 이에게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모든 문장부호가 생략된 독일어 텍스트를 읽을 때 확인된다. 이렇듯 문장부호가 문장 또는 텍스트 내에서 이해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장부호법은 사실상 독일어 학습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국어에서는 문장부호를 기능적인 측면에서 “문장의 문법적(또는 논리적) 구조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문장을 바로 읽도록 돕는, 다시 말하면 바른 讀解의 길잡이 구실을 하는 일련의 부호들”[1]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장부호들은 한 문장의 끝남과 문장 안에서 쉼을 표시하는 것에서부터 문장성분들 사이의 대립을 보이기

1) 이익섭, 「국어문장부호의 기능」, 『冠嶽語文硏究』 第21輯, 1996, 19쪽.

위해, 혹은 강조하는 부분이 어느 것이며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를 표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2] 이렇듯 문장에서 문장부호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데 독일어와 한국어의 대조 연구에서 문장부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본고에서는 현재 독일어에서 사용되는 12개의 문장부호 중에 그 쓰임이 매우 다양하며 수많은 규칙과 예외규정을 지닌 콤마의 기능 및 용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양 언어 간에 대조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한국인 독일어 학습자의 독일어 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고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독일어와 한국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장부호들의 명칭과 외형적인 형태 및 분류방식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제Ⅲ장에서는 독일어 콤마의 변천과정을 명칭과 형태뿐만 아니라 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제Ⅳ장에서는 독일어 콤마의 기능과 유형을 세분화해서 고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제Ⅴ장에서 독일어 콤마와 한국어 쉼표의 용법을 비교하는데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문장부호의 용법을 비교·분석하는 자료로는 한국어인 경우 『한글맞춤법』(1988)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문장 부호 해설』(2015)이 토대가 되며, 독일어의 경우 '독일어 정서법 공식규정집(*Die amtliche Regelung der deutschen Rechtschreibung*)'(1995)과 '두덴. 정서법(*Duden. Die deutsche Rechtschreibung*)'(2009)이 중심이 된다.

---

2) 김주미, 「통일시대의 문장부호 –';'를 쓰십니까?–」, 『한말연구』 제11호, 한말연구학회, 2002, 100쪽.

Ⅱ. 독일어와 한국어 문장부호의 기능변화와 분류

1. 독일어 문장부호의 기능변화와 분류

한국어에서 흔히 구두점(句讀點)[3]이라고 부르는 문장부호법에 대한 명칭은 현재 독일어에서는 'Interpunktion'과 'Zeichensetzung'으로 병행해서 사용된다. 라틴어 'interpunctio'('Trennung durch Punkte' 점에 의한 구분)의 의미를 갖는 'Interpunktion'은 문장부호법 발전과정에서 'Distinktion', 'Schriftscheidung' 내지 'Tüpfelung'이란 명칭으로 교호적으로 사용되며, 18세기에는 'Zeichensetzung'이란 용어가 더욱 자주 사용되었다. 15세기 인쇄술 발명은 문장부호의 기능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고대에 전통을 두고 있는 초기 문장부호법은 낭독자가 그 자신을 위해 혹은 듣는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스스로 표기했던 강세와 휴지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 인쇄술이 발명될 때까지 낭독자를 위한 휴지 부호로서 쓰인 '3점 체계'[4]가 문장부호의 기능을 충분히

3) 한국을 포함해 동양에서 일컫는 '句讀點'이란 개념은 중국 원(元)나라 성종 때(1297년)에 간행된 「韻會擧要」라는 책에 따르면 오늘날의 마침표에 해당하는 점을 '句點', 쉼표에 해당하는 점을 '讀點'이라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 서정욱, 『국어 정서법의 이론과 실제』, 문창사, 1998, 23쪽. 마침표인 '句點'은 글자 옆에 찍고, 쉼표인 '讀點'은 글자 중간에 찍었으며, 이 원리는 바로 '용비어천가'에 나타난다.

4) 동양에서와 같이 서양에서도 문장부호들 중에 점(Punkt)이 처음으로 그리스 비문에서 나타났다. 기원전 200년경에는 점이 행에 위치하는 높낮이에 따라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갖는 고정된 문장부호법, 소위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anes von Byzanz)의 '3점 체계(Dreipunktesystem)'가 생겨났다. 행의 위쪽에 위치하는 점(vollständiger Punkt)은 사고(Gedanke)가 종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의 중간에 오는 점(Mittelpunkt)은 사고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휴지를 취하고자 할 때 쓰였으며, 행 아래에 오는 점(Unterpunkt)은 사고의 내용을 보충하고자 할 때 사용되었다. 이재호, 「독일어 문장부호의 위계성과 수축규칙」, 『독일어문학』 제46집, 한국독일어문학회, 2009, 301~302쪽 참고.

감당했지만, 인쇄술의 발명이후 인쇄된 서적을 접하는 독자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문장의 종류를 표시해 주기 위한 문장부호라든가 통사적 구조를 명확하게 표시해 줄 수 있는 부호 등과 같은 다양한 문장부호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이때는 문장부호의 주기능이 낭독자나 청중의 입장을 고려한 표기기능(Aufzeichnungsfunktion)에서 글말 텍스트를 독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이해기능(Erfassungsfunktion)으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현재 독일어 문장부호법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문법적·통사적 원칙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라 하겠다. 인쇄술의 발명은 독일어 문장부호법 역사의 새 장을 열었으며 1462년 Niclas von Wyle를 출발점으로 독일에서는 많은 문법학자나 언어학자들이 문장부호법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기 시작했다.[5] 독일어 문장부호법은 역사적인 발전과정에서 수사학, 통사론, 정서법의 한 분야로 다루어져 왔으나 1915년에 간행된 두덴(Duden, Rechtschreibung der deutschen Sprache und der Fremdwörter) 제9판부터 정서법의 한 부분영역으로서 공적인 합법성이 부여되었다.

현행 독일어 정서법 규정의 문장부호법은 문장부호를 세 개 부류로 구분한다. 첫 번째 부류에는 문장의 종결을 표시하는 Punkt(마침표/온점), Fragezeichen(물음표), Ausrufezeichen(느낌표)가 속하며, 두 번

5) 초기 신고지 독일어 시대 이후 독일어 문장부호법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아래의 문헌들을 참고하길 바란다: Alexander Bieling: *Das Princip der deutschen Interpunktion nebst einer übersichtlichen Darstellung ihrer Geschichte*. Berlin 1880, S. 16~37.
Stefan Höchli: *Zur Geschichte der Interpunktion im Deutschen. Eine kritische Darstellung der Lehrschriften von der zweiten Hälfte des 15. Jahrhunderts bis zum Ende des 18. Jahrhunderts*. Berlin/New York 1981.
Johannes Müller: *Quellenschriften und Geschichte des deutschsprachlichen Unterrichts bis zur Mitte des 16. Jahrhunderts*. Gotha 1882 (Reprint Darmstadt 1969).

째 부류에는 문장 내 단위를 구분하는 Komma(쉼표/콤마[6]), Semikolon(쌍반점), Doppelpunkt(쌍점), Gedankenstrich(줄표), Klammern((소)괄호)가 포함되며, 마지막 부류에 속하는 Anführungszeichen((큰)따옴표)는 진술구문이나 텍스트의 일부를 인용할 때 혹은 단어나 텍스트의 일부를 강조할 때 사용된다. 열거된 9개의 문장부호 외에도 독일어 규정집은 생략되었음을 표시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Apostroph(아포스트로피), Ergänzungsstrich(보충붙임표), Auslassungspunkte(생략점)과 Punkt nach Abkürzungen bzw. Ordinalzahlen(축약어나 서수 뒤에 사용되는 점) 그리고 단어나 숫자 등과 함께 쓰이는 Schrägstrich(빗금)을 포함해 총 14개의 부호를 제시하고 있다.[7]

현재 독일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문장부호들을 규정집에서의 단순한 분류방식보다 좀 더 세분화해서 분류할 필요가 있다. 독일어의

---

6) 한국어로 간행된 문장부호 관련 논문이나 저서에서는 서양어의 문장부호 'comma/Komma'를 대부분 '반점' 또는 '쉼표'로 번역하고 있다. 그럼에도 본고에서는 독일어 문장부호 'Komma'를 '반점/쉼표'라 번역하지 않고 '콤마'라고 옮기고 있다. 그 이유는 본고에서 'Komma'를 그의 기능과 수축 가능성에 따라 세 가지 종류[einfaches Komma: (단일)콤마, paariges Komma: 쌍콤마, das kontrahierte Komma: 수축콤마]로 나누었고, 쌍으로 나타나는 'paariges Komma'를 '쌍반점'으로 번역할 경우 독일어 문장부호 'Semikolon'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독일어 'Komma'를 쉼표로 옮길 수 없는 이유는 독일어 콤마규칙의 대부분은 한국어의 쉼표와는 달리 통사론적 원칙에 따라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7) Vgl. Internationaler Arbeitskreis für Orthographie (Hrsg.): *Deutsche Rechtschreibung. Regeln und Wörterverzeichnis. Vorlage für die amtliche Regelung*. Tübingen 1995, S. 73~101. 독일어와 한국어의 문장부호를 비교해보면, 독일어의 문장부호 괄호(Klammern)는 한국어의 문장부호 소괄호에 해당된다. 한국어 문장부호법에서는 묶음표(括弧符)류 안에 괄호를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독일어 문장부호 'Anführungszeichen'은 한국어의 큰따옴표에 해당한다. 참고로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문장부호를 독일어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소괄호(runde Klammern), 중괄호(geschweifte Klammern), 대괄호(eckige Klammern), 큰따옴표(volle Anführungszeichen), 작은따옴표(halbe Anführungszeichen).

12개 문장부호는 세 가지 방식, 즉 언어체계의 층위별 분류, 기본 기능별 분류, 기본 위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포된다.[8)]

〈표 1〉 언어체계의 층위별 분류

언어체계 층위	문장부호
어휘적, 통사적, 텍스트 층위	생략점, 괄호, 큰따옴표
어휘적, 통사적 층위	쌍점
통사적, 텍스트 층위	온점, 물음표, 느낌표
통사적 층위	콤마, 쌍반점, 줄표, 쌍콤마, 쌍줄표

〈표 2〉 기본 기능별 분류

기본 기능	문장부호
모든 언어체계 층위에서 단위를 경계 짓는 기능	생략점
통사적 층위와 텍스트 층위에서 단위를 강조하는 기능	소괄호, 큰따옴표
텍스트 내에서 문장을 경계 짓는 구분기능	온점, 물음표, 느낌표
단일부호로서 복합문을 부분문으로 경계 짓거나 단문의 요소들을 경계 짓는 기능	콤마, 쌍반점, 줄표, 쌍점
이중부호로서 부분문, 단어군, 단어를 강조하는 기능	쌍콤마, 쌍줄표

8) Vgl. Renate Baudusch(1981/1984): “Prinzipien der deutschen Interpunktion” In: *Texte zur Geschichte der deutsche Interpunktion und ihrer Reform 1462–1983*. Hrsg. von Burckhard Garbe. Hildesheim/Zürich/New York 1984 (= GermL 4–6/83), S. 327~328 und auch vgl. Doris Jansen-Tang: *Ziele und Möglichkeiten einer Reform der deutschen Orthographie seit 1901. Historische Entwicklung, Analyse und Vorschläge zur Veränderung der Duden-Norm,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Groß- und Kleinschreibung und Interpunktion*. Frankfurt a. M../Bern/New York/Paris 1988 (= Europäische Hochschulschriften Bd. 1033), S. 440.

〈표 3〉 기본 위치에 따른 분류

기본 위치	문장부호
모든 위치	생략점, 큰따옴표, 소괄호
문장 끝에 오는 종결부호	온점, 느낌표, 물음표
문장 내 부호	콤마, 쌍반점, 줄표, 쌍점, 쌍콤마, 쌍줄표

위의 분류방식을 토대로 12개의 문장부호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일별된다. 첫 번째 부류는 우선 통사적 층위에서 부분문장, 단어군, 단어 등을 경계 짓거나 강조기능을 가지면서 문장 내에서만 사용되는 문장부호들로서 콤마, 쌍반점, 줄표, 쌍점, 쌍콤마, 쌍줄표가 이에 속한다.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나머지 6개 문장부호는 통사적, 텍스트 층위에서 또는 부분적으로 어휘적 층위에서 나타나는데, 이들은 문장을 경계 짓는 기능을 하며 문장 끝에 위치하는 온점, 느낌표, 물음표와 모든 위치에서 단위를 경계 짓거나 강조기능을 하는 생략점, 큰따옴표, 소괄호로 양분된다. 문장부호의 세 가지 분류방식에 따라 콤마는 경계 짓는 기능을, 쌍콤마는 강조의 기본기능을 가지면서 기본위치에서는 문장 내에서 나타나고 언어체계의 층위에서는 통사적 층위에서 쓰이는 문장부호라 하겠다.

2. 한국어 문장부호 분류

한국어의 문장부호는 일본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서구어의 영향을 받아 유입되었는데 과도기를 거쳐 현대에 정착하게 되었다.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학회에서 1933년 10월 29일 조선어 철자법 통일안(朝鮮語綴字法統一案)『한글 마춤법 통일안』을 제정 발표했다. 이 통일안은 총론 3개항, 각론 7개항, 65항으로 되어 있다. 한국어에서 문장부호를

이 통일안의 부록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문장부호의 위상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88년에 새로 제정된『한글 맞춤법』의 부록에는 문장부호를 7개의 대분류인 마침표, 쉼표, 따옴표, 묶음표, 이음표, 드러냄표, 안드러냄표와 19개의 소분류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9)]

Ⅰ. 마침표[終止符]: 온점(.)/고리점(。), 물음표(?), 느낌표(!)
Ⅱ. 쉼표[休止符]: 반점(,)/모점(、), 가운뎃점(・), 쌍점(:), 빗금(/)
Ⅲ. 따옴표[引用符]: 큰따옴표(“ ”)/겹낫표(『 』), 작은따옴표(‘ ’)/낫표(「 」)
Ⅳ. 묶음표[括弧符]: 소괄호(( )), 중괄호({ }), 대괄호([ ])
Ⅴ. 이음표[連結符]: 줄표(—), 붙임표(-), 물결표(~)
Ⅵ. 드러냄표[顯在符]: 드러냄표(◦, •)
Ⅶ. 안드러냄표[潛在符]: 숨김표(××, ○○), 빠짐표(□), 줄임표(……)

글쓰기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실제 언어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문장부호와 그 용법을 반영한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1996년 이후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고 2014년에 국어심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 새 ‘문장부호’의 가장 큰 변화는 가로쓰기만을 대상으로 부호 24종의 용법을 94개 조항으로 나누었고 ‘온점’과 ‘반점’으로 부르던 부호 ‘.’와 ‘,’에 대하여 각각 ‘마침표’와 ‘쉼표’라고 하고 기존의 명칭도 쓸 수 있게 하였다.

9) 최태영,『한글 맞춤법 강해』,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5, 126~134쪽 참고.

Ⅲ. 독일어 콤마의 변천과정

현재 독일어에서 사용되는 콤마가 언제부터 쓰이게 되었는가를 알아보고 그것의 쓰임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다양하게 확대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어에서 콤마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른 문장부호들과는 달리 그의 외형적인 형태와 명칭이 자주 바뀌었고 기본기능 또한 변화를 거듭해 왔다. 콤마는 strichlin이란 명칭과 빗금(/)의 형태로 Niclas von Wyle(1462)에 처음 등장한다. 이 문장부호는 단어들이나 단어군을 경계 짓는데 사용되었다. Wyle는 보다 큰 문장단락을 경계 짓는 문장부호로서 오늘날의 쌍반점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느낌표의 모습에 더 가까운 virgel(!)을 사용하였다. 현재의 쌍반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이 문장부호를 Heinrich Steinhöwel(1473)이 처음으로 coma라 명명하였으며, 콤마의 기능을 하는 문장부호로 virgula란 명칭을 사용했다. 이 두개의 명칭(strichlin, virgula)과 더불어 16세기 중반에는 Johannes Kolross(1564)가 문장 내 부호로서 콤마의 기능을 하는 라틴어의 Comma와 함께 Colon이란 명칭을 도입하였다. Wolfgang Ratke(1629)는 Abschneidungszeichen이란 이름으로 현재의 모습과 동일한 라틴어 부호(,)를 독일어에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나[10] 그 형태는 관철되지 못했다. Georg Philipp Harsdörffer(1656)는 콤마의 기능을 보다 세분화하고 있고 이를 위한 두 개의 문장부호, 즉 독일어 부호로서 Zwergstrichlein과 라틴어 부호인 Beystrichlein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는 열거된 단어들 사이에 또는 강조된 문장성분 뒤에나 후치된 부문장 앞에서의 콤마 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격어에서도

10) Vgl. Stefan Höchli 1981, S. 86~87.

콤마를 사용했다.[11]

독일어 문장부호법 관련 문헌에서는 콤마가 15세기부터 17세기 말까지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며 빗금(/)의 형태를 유지하다가[12] 18세기 Hieronymus Freyer(1721)부터 현재 사용되는 명칭(Comma 혹은 Beystrich)과 형태(,)가 나타난다.[13] 그 후 간행된 독일어 문법서나 정서법 관련 문헌에서는 콤마의 이전형태인 빗금(/)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14] Comma와 Beystrich이란 명칭으로 교호적으로 사용된다. Freyer에게서 현재 사용되는 콤마의 일부 규칙들, 예를 들면 호칭어, 감탄사, 동일한 품사의 단어들, 강조된 문장성분들, 후치된 상세 규정어, 그리고 정확히 규정할 수 없는 부문장에서의 콤마사용을 발견할 수 있다.[15] Johann Jacob Wippel(1746)에서는 und 다음에 하나의 새로운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면 그 접속사 앞에 콤마를 사용하는 용법이 처음으로 나타난다.[16] 한편 Johann Balthasar von Antesperg(1747)

---

11) Vgl. ebenda, S. 117.

12) Vgl. ebenda, S. 275.

13) Vgl. Christian Stang und Anja Steinhauer(Hrsg.): *Duden. Komma, Punkt und alle anderen Satzzeichen. Mit umfangreicher Beispielsammlung*. 5., neu bearbeitete Auflage. Mannheim 2007, S. 13. 한 예로, 성경텍스트에서는 17세기말까지 비르겔(Virgel: /)이 쓰이고 1736년도 간행본부터는 현재의 형태인 콤마(,)로 대체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문헌들을 참고하길 바란다:
Hartmut Günther: "'... und hält den Verstand an' – Eine Etüde zur Entwicklung der deutschen Interpunktion 1522–1961" In: *Deutsche Grammatik in Theorie und Praxis*. Hrsg. von Rolf Thieroff ... Tübingen: Neimeyer 2000, S. 278 und 280.
Werner Besch: "Zur Entwicklung der deutschen Interpunktion seit dem späten Mittelalter" In: *Interpretation und Edition deutscher Texte des Mittelalters: Festschrift für John Asher zum 60 Geburtstag*. Hrsg. von Kathryn Smits/Werner Besch/Victor Lange. Berlin 1981, S. 191ff.

14) Vgl. Stefan Höchli 1981, S. 165~166 und 279.

15) Vgl. ebenda, S. 279.

16) Vgl. ebenda, S. 181.

는 접속사 dass, damit, weil 과 관계대명사 앞에서의 콤마 용법을 제시하였다.[17] Johann Bernhard Basedow(1759)는 이미 11개의 콤마 규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7개는 문법적, 2개는 의미론적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리듬·억양에 토대를 두고 있다.[18] Johann Friedrich Heynatz(1782)는 콤마를 단일콤마와 쌍콤마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때 전자는 구분하는 기능을, 후자는 포함하는 기능을 갖는다.[19] Johann Christoph Adelung(1782/1790)은 문법적으로 규정된 5개의 콤마 규칙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행의 콤마용법과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20]

〈표 4〉 콤마의 명칭과 형태변화(1462 - 1790)[21]

독일의 문법학자	명칭	형태
N. v. Wyle(1462)	strichlin	/
H. Steinhöwe (1473)	virgula	/
Joh. Kolross(1564)	Comma, Colon	/ :
W. Ratke(1629)	Abschneidungszeichen	,
G. P. Harsdörffer(1656)	Zwerg-, Beystrichlein	/ ,
K. Stieler(1691)	Beystrichlein	/
H. Freyer(1721)	Comma, Beystrich	,
Joh. J. Wippel(1746)	Comma	,
Joh. B. v. Antesperg(1747)	Beystrich	,
Joh. B. Basedow(1759)	Comma	,
Joh. F. Heynatz(1782)	Beystrich, Komma	,
Joh. Chr. Adelung(1782/1790)	Comma	,

17) Vgl. ebenda, S. 187.
18) Vgl. ebenda, S. 208~209.
19) Vgl. ebenda, S. 231.
20) Vgl. ebenda, S. 243.
21) Vgl. ebenda, S. 275~284 und 316.

18세기 말경에는 콤마의 사용이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규정과 일치하였다. 콤마 이외의 물음표, 느낌표, 쌍점과 같은 문장부호들은 대체로 내용적 기준에 따라 사용되었다. 오늘날의 콤마규칙은 특히 Karl Ferdinand Becker에 의해 상이한 통사적 구조단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통사적 구조단위를 분석하기 위해서 최소한 직관적으로 단어군과 상이한 기능을 지닌 문장성분들 그리고 주문장과 부문장을 구분하는 능력이 요구된다.[22]

Ⅳ. 독일어 콤마의 기능과 유형

독일어에는 다른 유럽언어와는 달리 매우 복잡한 콤마규칙들이 있다. 독일어의 콤마규칙은 통사론적 원칙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반면, 영어나 네덜란드어에서는 의미론적 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콤마는 문장부호 중에서 가장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매우 변덕스럽고 확고한 규칙들로 인해 제어하기 가장 까다로운 문장부호이다. 그 때문에 문장부호 사용에서 대부분의 오류들이 콤마에서 나타난다. 콤마의 주기능은 글말을 특히 문법적 관점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글 쓰는 이가 독일어의 문법구조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23]

콤마는 그 기능에 따라 두 가지 형태, 즉 단일콤마(einfaches Komma)와 쌍콤마(paariges Komma)로 구분된다. 콤마는 두 개의 상이한 통사

22) Vgl. Renate Baudusch: *Zeichensetzung. klipp & klar. Funktion und Gebrauch der Satzzeichen verständlich erklärt*. Gütersloh/München 2000, S. 69.

23) Vgl. Max Zollinger: *Sinn und Gebrauch der Interpunktion*. Erlenbach-Zürich 1940, S. 55 und auch vgl. Renate Baudusch 2000, S. 71.

론적 관계를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즉 콤마의 첫 번째 기능은 같은 지위에 있는 문장성분들을 구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특정한 유형의 문장성분들, 즉 문장가를 지닌 구성소(satzwertige Konstituenten)를 다른 문장성분들과 구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전자에는 단일콤마가, 후자에는 쌍콤마가 사용된다. 두 번째 기능에서 분리시키고자 하는 문장성분이 문두나 문미에 올 경우 쌍콤마 중의 하나는 종결부호에 의해 사라진다.

독일어의 콤마는 문장부호들 간의 이러한 수축 가능성과 각각의 기능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단일콤마, 쌍콤마, 수축된 콤마.[24]

1. 경계(구분) 기능의 단일콤마(das einfache Komma zur Abgrenzung)

(1) Roggen, Weizen, Gerste und Hafer sind hier zu Lande die häufigsten Getreidearten. (Baudusch 2000, 74)

단일콤마는 예문(1)에서와 같이 같은 종류로서 병렬관계에 있는 문장성분들을 서로 경계 짓는 기본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단일콤마는 예를 들어 각각 동일한 기능과 동일한 관계어를 지니며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문장성분들을 분리시킨다. 이러한 문장성분들은 열거의 특징을 갖는다. 또한 단일콤마는 병렬관계에 있는 부분문장들(주문장 혹은 부문장), 부정사군과 분사군을 서로 경계 짓는다.

---

24) Vgl. Renate Baudusch: "Untersuchungen zu einer Reform der deutschen Orthographie auf dem Gebiet der Interpunktion" In: *Sprach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en zu einer Reform der deutschen Orthographie*. Berlin 1981 (= Linguistische Studien 83/II), S. 222ff.

(2) Oft sah er seine Nachbarin ganz in Gedanken versunken auf der Bank am Weiher im Park sitzen. (Baudusch 2000, 71)

하지만 (2)에서와 같이 여러 종류의 문장성분들이 있는 단일문장에서는, 가령 장문이라 할지라도 연속해서 나타나는 문장성분들이 각각 상이한 종류라면 콤마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문장성분들이 동일한 문장 내에서 그들이 갖는 특별한 기능을 갖고 단지 한번만 나타날 경우 콤마를 사용하지 않는다. 단문의 관계구조에서 각각의 문장성분은 또 다른 문장성분의 상위나 혹은 하위에 배열된다.

2. 삽입어구 강조기능의 쌍콤마(das paarige Komma zur Hervorhebung von Einschüben)

(3) Euch, meine lieben Gäste, heiße ich herzlich willkommen! (Baudusch 2000, 87)

(3)에서의 쌍콤마는 줄표, 소괄호 혹은 큰따옴표와 유사하게 괄호기능을 갖는다. 그 이유는 이 문장부호가 통사적 단위를 포괄하며 문장에서 이러한 단위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는 문장의 진행(흐름)이 삽입에 의해 중단되고 뒤이어 다시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삽입된 단위들로는 예를 들면 호칭어, 감탄사 혹은 보다 상세한 규정어 등을 들 수 있다.

3. 수축된 콤마(das kontrahierte Komma)

(4) a. Sie rief: „Kinder, seid doch nicht so laut!“

b. „Seid doch nicht so laut, Kinder!“ (Baudusch 2000, 183)

(4a, b)에서는 외형적으로 단일콤마의 형태를 보이지만 쌍콤마의 기능을 하는 문장들이다. 즉 (4a)와 (4b) 모두 Kinder 앞뒤에 콤마가 있는 소위 심층구조로서 Kinder 앞의 콤마는 쌍점(4a)으로, Kinder 뒤의 콤마는 느낌표(4b)로 대체된 것으로 수축된 콤마는 삽입된 통사적 단위가 전체문장의 앞에나 끝에 오는 경우에 나타난다. 따라서 병렬문에서 통사론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는 부분문장들 사이에 오는 콤마나 혹은 종속문에서 통사론적으로 상위의 부분문장과 하위의 부분문장 사이에 오는 콤마 모두 엄밀히 말하자면 수축된 콤마로 볼 수 있는 것이다.[25] 문장부호의 수축규칙에 따르면 콤마는 경계와 구분기능이 가장 약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문장부호의 서열상 가장 낮은 단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콤마는 보다 강한 구분기능을 하는 문장부호에 의해 소멸될 수 있다.[26] 독일어 문장부호 중에 Gedankenstrich(줄표), Klammern(괄호), Anführungszeichen(따옴표), Auslassungspunkte(줄임표)는 이러한 수축규칙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콤마와의 상이한 결합 형태로 나타난다.

V. 독일어와 한국어의 문장부호 콤마/쉼표 ‘,’의 용법 비교

독일어와 한국어 문장부호는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개

25) Vgl. ebenda, S. 225.

26) 독일어 문장부호의 위계성과 수축규칙에 관해서는 이재호 2009, 308~316쪽을 참고하길 바란다.

별 문장부호들이 갖는 기능은 상당수가 동일하지만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문장부호들 중에 기능 및 용법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어로는 반점 또는 쉼표[27]라 불리는 독일어의 콤마에 있다. 독일어에서 콤마에 대한 규칙들은 예를 들어 독일어와 가장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는 영어에서와는 달리 통사론적인 원칙에 따라 규정되었기에 독일어에는 수많은 규칙이 있으며 독일어의 통사론적 구조 및 개념의 이해가 없이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H.H. Munske에 따르면 독일어에서의 콤마규칙은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와 비교해볼 때 "세밀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통사적으로 분명하게 근거가 제시된 언어는 없다"[28] 독일어의 콤마는 텍스트에서 문장성분들이 서로 병렬적인지 또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를 나타내주며 그 내부구조를 알게 해 준다.

한국어에서 반점으로 불리는 쉼표는 문장 안에서 짧은 휴지를 나타

27) 『한글 맞춤법』(1988) 규정에서 '쉼표'는 문장 내에서 쓰이는 반점, 쌍점, 빗금 등을 이르는 말이었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반점'이라는 용어보다는 ','를 쉼표로 널리 쓰임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언어현실에 부합하도록 문장부호 ','를 가르키는 기본적인 용어로서 '쉼표'를 인정하였으며 '반점'이라는 용어도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문장부호 해설』, 생각쉼표 & 휴먼컬처아리랑, 2015, 30~31쪽 참고.

28) Horst Haider Munske, 이진희 옮김, 『독일어 맞춤법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2008, 157쪽. 유럽언어들 간의 문장부호/콤마를 비교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문장부호/콤마가 휴지를 표시하는 주 기능을 갖는 언어로는 대부분의 로만어들과 영어 및 노르웨이어를 들 수 있고, 글 쓰는 이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 규정이 없이 자유롭게 사용되는 언어에는 덴마크어, 스웨덴어, 네덜란드어가 속한다. 반면 문법적인 원칙에 따라 규정된 언어에는 독일어, 핀란드어, 아이슬란드어 부분적으로는 리투아니아어, 폴란드어가 속하는데 그중 독일어가 단연 으뜸으로 꼽힌다. Vgl. Werner Besch: "Zur Entwicklung der deutschen Interpunktion seit dem späten Mittelalter" In: Kathryn Smits/Werner Besch/Victor Lange(Hgg.) 1981: *Interpretation und Edition deutscher Texte des Mittelalters. Festschrift für John Asher*. Berlin, S. 204 und auch vgl. Wim Waumans: *Zur Problematik der Kommasetzung im heutigen Deutsch*. Duisburg: Linguistic Agency University of Duisburg 1993, S. 19.

낸다.『한글 맞춤법』(1988)과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한『문장부호 해설』에는 총 1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쉼표의 기능 및 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어에서 쉼표의 주된 용법을 "어구를 나열하거나 문장의 연결 관계를 나타낼 때 쓴다. 문장에서 끊어 읽을 부분임을 나타낼 때 쓴다."[29] 라고 적고 있다. 쉼표의 규정에 대해 이익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등하거난 종속적인 절이 이어질 때 절 사이에 쓴다'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규정집에서 보기로 들고 있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주문장 중간에 쉼표가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30] 이러한 경우 독일어에서는 콤마를 쓰거나 등위접속사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익섭에 따르면 "쉼표(comma)는 문장부호 중 그 쓰임이 가장 빈번하고 복잡하며, 그 선택의 유동성도 가장 큰 편에 속하는 부호다. 영어의 경우는 이 한 부호의 사용 빈도가 나머지 부호 전체의 그것보다 두 배 이상으로 높으며 [...], 또 그 용법이 복잡하고 다양하며 한두 규정으로는 포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취향이나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될 수 있는 폭이 큰 부호로 인식되고 있다 [...]. 그만큼 쉼표는 어느 문장부호보다도 정밀한 규정을 요하는 부호라고 할 수 있다."[31]

이제 한국어 쉼표[32]와 독일어 콤마의 기능을 구체적인 용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3]

---

29) 국립국어원, 앞의 책, 81쪽.

30) 이익섭, 앞의 논문, 26쪽 참고.

31) 이익섭, 앞의 논문, 21쪽.

32) 새 '문장부호'(2015년 1월 1일 시행)는 '온점'과 '반점'으로 부르던 부호 '.'과 ','에 대하여 각각 '마침표'와 '쉼표'라고 하고 기존에 부르던 이름도 쓸 수 있게 하였다. 즉 ','는 '쉼표' 또는 '반점'이란 용어를 교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 앞의 책, 머리말과 71쪽 참고.

33) 본고의 목적이 독일어와 한국어 문장부호 비교분석을 통한 문장부호 사용의 올바

1. 독일어 콤마와 한국어 쉼표의 기능적 공통점과 차이점

(5) a. 근면, 검소, 협동은 우리 겨레의 미덕이다.
b. 충청도의 계룡산, 전라도의 내장산, 강원도의 설악산은 모두 국립 공원이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5a, b)에서와 같이 쉼표는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어에서도 동일한 지위의 단어와 단어군 그리고 부분문장까지도 콤마를 이용하여 서로를 구분한다.

(6) a. Sie wirkte ruhig, gelassen, entspannt. (*Duden*, S. 70) (병렬된 단어)
b. Ich wollte nur am Strand sitzen, keine Berge besteigen, keine Museen besuchen, an keiner Weinprobe teilnehmen. (*Duden*, S. 70) (병렬된 단어군)
c. Die Sonne versank hinter dem Horizont, die Schatten der Nacht senkten sich über das Land. (*Duden*, S. 78) (병렬된 부분문장)

(6a, b, c)에서 단일콤마는 und, oder 등과 같은 등위접속사의 기능을 한다. 이 경우에 단일콤마는 병렬적인 관계에 있는 동급의 문장성분들을 분리하여 경계 짓는 동시에 연결해주는 기능을 한다. 즉 독일어에서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등위접속사와 단일콤마가 함께 사용될 수 없다.

른 이해 제고에 있으므로, 이하 용례들은 임의적으로 선별한 것이 아니라 양국어의 규정집에서 그대로 발췌해 제시함. 한국어의 용례는 별도의 출처표기 없이 『문장부호 해설』(2015)에서 발췌한 것이며, 독일어 예문들은 '두덴 정서법 (*Duden. Die deutsche Rechtschreibung*)'(2009)을 *Duden*으로 병기하여 표시함.

하지만 독일어에서는 세 개 이상의 요소가 열거될 때 단일콤마가 등위접속사 und 나 oder 앞에 올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콤마를 소위 시리얼 콤마 또는 옥스퍼드 콤마라고 하는데[34], 콤마를 폭넓게 사용하는 이유는 중의성(ambiguity)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예를 들어 보자.

(7) a. Sabine, meine Schwester, und ich wohnen in demselben Haus.
b. Sabine, meine Schwester und ich wohnen in demselben Haus.
(*Duden*, S. 71)

콤마의 사용유무에 따라 후치된 동격어나 열거 결합체로 구분되며 이때 문장의 의미가 결정된다. (7a)에서 meine Schwester 뒤에 콤마를 사용할 경우 Sabine는 나의 누이를 지시하는 동격어가 되어 '2명이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의미가 되지만, meine Schwester 뒤에 콤마가 오지 않는 경우(7b)는 열거 결합체 구조로써 '3명이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7a)와 (7b)의 의미차이는 바로 콤마의 여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는 문장부호가 중요한 의미적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쉼표는 (8)의 경우처럼 짝을 지어 구별할 때 사용한다.

---

34) [a,b,c, and d] 와 [a,b,c and d]에서처럼, c 다음에 콤마가 있으면 미국식, 없으면 영국식이라 한다. 한학성에 따르면 영국에서도 'and' 앞에 쉼표를 사용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에서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이를 '옥스퍼드 쉼표'(the Oxford comma)라 부르고 있다. 한학성, 『영어 구두점의 문법』, 태학사, 2012, 74쪽 참고.
영어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1) The owner, the agent, and tenant were having an argument. 2) I want no ifs, ands, or buts. *The Chicago Manual of Style*, 15th edition 2003, p. 245.

(8) 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9) Groß und Klein, Jung und Alt, alle kamen zum Sommerfest. (Baudusch 2000, 75)
(10) Unser Proviant bestand aus gedörrtem Fleisch, Speck und Rauchschinken; Ei- und Milchpulver; Reis, Nudeln und Grieß. (*Duden*, S. 92)

독일어에서도 (9)와 같이 동일한 종류의 단어들을 나열할 때 콤마를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10)에서처럼 쌍반점(Semikolon)을 쓸 수도 있다.

(11) 첫째, 몸이 튼튼해야 한다.

한국어에서 쉼표는 (11)에서와 같이 열거의 순서를 나타내는 어구 다음에 사용한다. 독일어에서 열거의 순서에 상응하는 단어로서 erstens, zweitens 등이 해당되는데, (12)에서와 같이 이 단어가 부사로서 문두에 올 경우 콤마를 두지 않으며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다.

(12) Erstens habe ich kein Geld und zweitens keine Zeit.[35]

한국어에서 쉼표는 문장의 연결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절과 절 사이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13) a.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b. 떡국은 설날의 대표적인 음식인데, 이걸 먹어야 비로소 나이도 한 살 더 먹는다고 한다.

35) https://www.duden.de/rechtschreibung/erstens

(13a)는 대등한 절이고, (13b)는 '이걸 먹어야 비로소 나이도 한 살 더 먹는다고 한다'라는 주절과 '떡국은 설날의 대표적인 음식이다'라는 종속절로 이루어져 있다.

독일어에서는 대등절과 종속절에서 콤마의 사용이 구분된다.

대등절에서의 콤마사용

(14) a. Die Sonne versank hinter dem Horizont, die Schatten der Nacht senkten sich über das Land. (*Duden*, S. 78)

b. Seien Sie bitte so nett und geben Sie mir das Buch. (*Duden*, S. 78)

c. Er schimpfte auf die Regierung[,] und sein Publikum applaudierte. (*Duden*, S. 78)

d. Das Tier, es wird wohl ein Wiesel gewesen sein, war plötzlich verschwunden. (*Duden*, S. 79)

e. Das Tier — es wird wohl ein Wiesel gewesen sein — war plötzlich verschwunden. Oder
Das Tier (es wird wohl ein Wiesel gewesen sein) war plötzlich verschwunden. (*Duden*, S. 79)

동일한 지위의 완전한 절들이 열거될 때 콤마를 사용하나(14a), 완전한 절 두 개를 등위접속사 und 또는 oder로 연결할 때는 콤마를 사용하지 않는다(14b). 하지만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두 개의 절에서 주어가 다를 때, 콤마를 사용할 수도 있다(14c). 주문장의 문장성분 일부가 또 다른 주문장 안에 삽입되는 경우 콤마를 쌍으로 사용한다(14d). 삽입된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콤마 대신에 줄표 또는 소괄호를 사용하기도 한다(14e).

종속절에서의 콤마사용

(15) a. Ich freue mich, dass du wieder gesund bist. (*Duden*, S. 79)
b. Ich hoffe, dass du wieder gesund bist, und grüße dich herzlich. (*Duden*, S. 79)

한편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 문장에서는 콤마의 사용이 필수적이며(15a) 삽입된 경우, 즉 문장 안에 삽입되는 표현의 양 옆에 콤마를 사용한다(15b).

(16) a. Was ich anfangen soll, weiß ich nicht. [...]
b. Das Kind weinte, weil es seinen Schlüssel verloren hatte. [...]
c. Das Buch, das ich dir mitgebracht habe, liegt auf dem Tisch. (이재호 2009, 315)

(16a)와 (16b)에서도 쌍콤마가 사용되었지만, 우리는 이를 쉽게 알아챌 수 없다. 그 이유는 쌍콤마 중의 하나가 문장부호의 수축규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16c)에서와 같이 부문장이 전체문장(Ganzsatz)[36]

36) 독일어 규정집의 '문장부호법'에서 보다 자세히 규명되어야 할 용어가 있다. 독일 학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Ganzsatz'란 용어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 하는 문제다. 'Ganzsatz'는 독일어 문법이나 언어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뿐더러 언어학 사전에도 수록되지 않은 용어이다. Vgl. Beatrice Primus: "Satzbegriff und Interpunktion" In: Gerhard Augst et al.(Hrsg.): *Zur Neuregelung der deutschen Orthographie. Begründung und Kritik*. Tübingen 1997, S. 467. 1998년부터 발효된 새 규정집에는 이 용어에 대한 상세 설명 없이, 단지 실례만 열거해 놓고 있다. 한국어로 번역된 독일어 정서법 관련 서적이나 논문의 경우 'Ganzsatz'를 '전체문장' 혹은 '완결문'이라 옮기고 있다. 전경재, 「독일어의 종결부호와 구분부호」,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제13집, 한국독일어교육학회, 2003, 209~221쪽; 정동규, 『독일정서법의 성립과 발전』, 담론사, 1997. 본고는 독일어의 단문뿐만 아니라 문장부호들이 결합된 상당수의 복합문이 고찰 대상이다. 따라서 'Ganzsatz'를 독일어의 모든 문장을 포함하는 '전체문장'으로 옮긴다.

내에 삽입될 경우에만 쌍콤마의 형태가 나타나고 부문장이 전체문장의 첫 머리나 끝에 올 경우에는 수축된 콤마가 오게 된다. 따라서 (16a)와 (16b)에서는 전체문장 내에서 항상 하나의 콤마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통용되는 독일어 문장부호법에 관한 모든 규정집에서는 (단일)콤마로 표기되고 있다.

(17) 여름에는 바다에서,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

한국어에서 쉼표는 (17)에서와 같이 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분을 줄여서 열거할 때 사용한다. 여기서 쉼표는 생략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며 문장 전체를 더욱 간결하게 하고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해주기도 한다.[37] 이러한 경우 독일어에서는 동일한 문장성분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콤마 대신에 등위접속사 und를 사용한다.

(18) a. Klaus studiert Medizin und seine Schwester Anglistik. (Baudusch 2000, 134)
b. Sie flog und er fuhr mit dem Zug nach Paris. (Baudusch 2000, 134)

(18a)는 동사의 반복을, (18b)는 전치사구의 반복을 피하는 경우이다.

(19) a. 지은아, 이리 좀 와 봐.
b. 네, 지금 가겠습니다.

37) 한학성, 앞의 책, 86쪽 참고.

한국어에서 쉼표는 (19a, b)의 경우에서와 같이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 뒤에 쓴다. 독일어에서도 (20a)처럼 동일한 용법으로 콤마를 사용한다.

(20) a. Harry, fahr bitte den Wagen vor. (*Duden*, S. 82)
b. Ja(,) ein Gläschen nehme ich noch. (*Duden*, S. 82)

다만 예문 (20b)에서처럼 긍정이나 부정 또는 부탁과 같은 입장표명을 위한 표현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콤마를 생략할 수도 있다.

(21) a. 책의 서문, 곧 머리말에는 책을 지은 목적이 드러나 있다.
b. 호준이 어머니, 다시 말해 나의 누님은 올해로 결혼한 지 20년이 된다.

한국어에서 쉼표는 (21a, b)의 경우처럼 한 문장 안에서 앞말을 '곧', '다시 말해' 등과 같은 어구로 다시 설명할 때 앞말 다음에 쓴다. 독일어에서도 예문 (22a, b, c)처럼 한국어의 '곧', '다시 말해'에 해당하는 단어들(nämlich, also, d.h. 등)이나 이와 유사한 의미의 낱말들(vor allem, und zwar, insbesondere 등) 앞에 콤마를 사용한다.

(22) a. Es gibt vier Jahreszeiten, nämlich Frühling, Sommer, Herbst und Winter. (*Duden*, S. 71)
b. Bei unserer nächsten Sitzung, also am Donnerstag, werde ich diese Angelegenheit zur Sprache bringen. (*Duden*, S. 71)
c. Das Schiff verkehrt wöchentlich einmal, und zwar sonntags. (*Duden*, S. 71)

한국어에서 쉼표는 (23)과 같이 문장 앞부분에서 조사 없이 쓰인 제시어나 주제어의 뒤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 돈, 돈이 인생의 전부이더냐?

위와 유사한 용법으로 독일어에서도 (24a, b)와 같이 동일한 단어나 단어군이 반복할 때 그 사이에 콤마를 둔다.

(24) a. Geld, Geld, Geld ist sein Lebensinhalt.
b. Mit nur tausend Euro, tausend Euro wäre ihm geholfen. (Baudusch 2000, 76)

아래의 예문들 (25)와 (26a, b)의 경우처럼 한국어에서 쉼표는 한 문장에 같은 의미의 어구가 반복될 때 앞에 오는 어구 다음에 쓸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경우가 독일어 콤마용법에도 해당된다.

(25) 그의 애국심, 몸을 사리지 않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26) a. Deine Mutter, die habe ich gut gekannt. (*Duden*, S. 81)
b. In diesem Krankenhaus, da haben sie mir die Mandeln herausgenommen. (*Duden*, S. 81)

한국어에서 쉼표는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쓴다.

(27) 갑돌이는,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27)에서는 갑돌이 다음에 쉼표를 둠으로써 '울면서'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나 쉼표를 두지 않을 경우는 문장의 구조나 의미가 불명확해진다.

(28) a. Der Trainer sagte im letzten Fernsehinterview der Mannschaftskapitän sei unfähig. (ohne Komma) (W.-D. Jägel 1981, 4)
b. Der Trainer sagte im letzten Fernsehinterview, der Mannschaftskapitän sei unfähig. (W.-D. Jägel 1981, 4)
c. Der Trainer, sagte im letzten Fernsehinterview der Mannschaftskapitän, sei unfähig. (W.-D. Jägel 1981, 4)

이와 유사한 경우를 독일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8a)는 한 개의 표층구조가 두 개 이상의 심층구조를 내포하고 있는 언어현상을 뜻하는 소위 중의성 문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콤마를 사용함으로써 그의 위치에 따라 '무능한 주체'가 (28b)에서는 팀의 주장이 되며, (28c)에서는 트레이너가 된다.

한국어에서 쉼표는 (29a)에서처럼 문장 중간에 끼어 든 어구의 앞뒤에 쓴다.

(29) a.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붙임 1] 이때에 쉼표 대신 줄표를 쓸 수 있다.
b. 나는 — 솔직히 말하면 —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아래 예시 (30a, b)처럼 독일어에서도 문장 중간에 어구가 삽입된 경우 쌍으로 된 콤마나 줄표가 올 수 있으며, (30c)와 같이 소괄호도 사용할 수 있다.

(30) a. Sie können mich, allerdings nur bis Donnerstag, in meinem Bonner Büro erreichen. (Baudusch 2000, 96)
b. Sie können mich — allerdings nur bis Donnerstag — in meinem Bonner Büro erreichen. (Baudusch 2000, 96)
c. Sie können mich (allerdings nur bis Donnerstag) in meinem Bonner Büro erreichen. (Baudusch 2000, 96)

한국어에서 쉼표는 아래의 예시 (31)과 같이 특별히 효과를 위해 끊어 읽는 곳을 나타낼 때 쓴다.

(31) 이 전투는 바로 우리가, 우리만이, 승리로 이끌 수 있다.

독일어에서도 위와 유사한 콤마 규정이 있는데, (32)의 경우처럼 가령 추가적 표현이나 부연 설명된 표현을 콤마를 사용하여 표시할 것인지는 글 쓰는 이의 재량에 따른다.

(32) Öffentliche Verkehrsmittel[,] wie Busse und Bahnen[,] sollen stärker gefördert werden. (*Duden*, S. 72)

또한 독일어 규정집에서는 (33)처럼 호칭이나 입장표명을 위한 표현을 특별히 강조하려고 할 경우에 콤마를 사용하며 문장 내에 삽입된 쌍콤마의 실례를 제시하고 있다.

(33) Das, mein Lieber, kann ich dir nicht versprechen. (*Duden*, S. 82)

이상으로 독일어 콤마와 한국어 쉼표의 용법을 비교해보았다. 이제는 한국어나 독일어에만 존재하는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한국어특유의 쉼표용법을 살펴보겠다.

2. 한국어 쉼표의 특수한 용법

첫째, 한글 맞춤법 쉼표 규정에 따르면 아래 예시 (34)에서처럼 쉼표 없이도 열거되는 사항임이 쉽게 드러날 때는 쓰지 않을 수 있다.

(34) 아버지 어머니께서 함께 오셨어요.

독일어에서는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는 콤마 또는 등위접속사인 und를 사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독일어에서는 비문법적 문장이다.

둘째, 한국어 쉼표는 도치문에서 도치된 어구들 사이에 쓴다.

(35) 이리 오세요, 어머님.
(36) Bitte kommen Sie hierher, verehrte Mutter.

(35) 문장을 독일어로 직역해서 옮기면 (36)과 같다. 한국어와는 달리 독일어 문장에서는 문장성분 주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독일어 문장구조에 따라 '어머님'은 주어라기보다는 호칭(Anrede)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치문이 아닌 '어머님 이리 오세요'를 독일어로 옮길 경우에 호칭 뒤에 콤마는 필수적이며 편지 같은 곳에서는 느낌표를 사용하기도 한다.

셋째, 열거할 어구들을 생략할 때 사용하는 줄임표 앞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다.

(37) 광역시: 광주, 대구, 대전……

넷째, 짧게 더듬는 말을 표시할 때 쓴다.

(38) 선생님, 부, 부정행위라니요? 그런 건 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37)과 (38)의 쉼표용법은 문장 내에서 기능을 하지 않는, 한국어 특유의 단어부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독일어 콤마의 특수한 용법

첫째, 명사 앞에 두 개의 형용사가 올 경우(zwei Adjektive vor einem Substantiv)에 형용사 사이에 콤마의 유무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39a)는 콤마를 지닌 열거 결합체(Aufzählung mit Komma)로서 두 개의 형용사가 동일한 층위에 있을 경우에는 콤마를 쓰거나 또는 그 대신에 등위 접속사 und를 사용할 수 있으며 '꼭대기 층들만이 파괴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는 반대로 (39b)의 경우는 소위 콤마가 없는 총체개념(Gesamtbegriff ohne Komma)으로서 두 번째 형용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개념을 나타낼 경우 콤마나 und를 쓸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아래층들도 파괴되었음을 의미한다.

(39) a. *die oberen*, (und zwar) *zerstörten Stockwerke*
= nur die oberen Stockwerke sind zerstört
b. *die oberen zerstörten Stockwerke*
= die unteren sind auch zerstört (Baudusch 2000, 78)

둘째, 독일어에서는 동일한 지위를 지니는 열거표현에서 접속사의 종류에 따라 콤마두기가 결정된다. 예문 (40)에서처럼 동일한 지위를 지니는 단어나 단어군 또는 부분 문장이 등위접속사와 같은 und, oder 등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콤마를 두지 않는다.

(40) Möchten Sie ein Menü aus drei, aus vier oder aus fünf Gängen? (*Duden*, S. 70)

(41) a. Wir waren arm, aber gesund. (*Duden*, S. 75)

b. Die Investition ist einerseits mit hohen Gewinnchancen, andererseits mit hohem Risiko verbunden. (*Duden*, S. 75)

그러나 예문 (41)과 같이 동일한 지위의 단어나 단어군 사이에 aber, doch, einerseits ... andererseits 등과 같은 상반접속사나 제한접속사 등이 올 때는 반드시 콤마를 사용해야 한다.

한국어 쉼표 관련 규정 9항을 보면 "일반적으로 쓰이는 접속어(그러나, 그리고, 그러므로, 그런데 등) 뒤에는 쓰이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38]라고 규정하였다. 이렇듯 한국어 쉼표의 쓰임은 접속사의 종류에 따라 콤마의 유무가 결정되는 독일어 콤마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VI. 나오는 말

글이란 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을 가장 바르고 빠르게 잡을 수 있도록 나타내어야 하며, 나타내는 생각과 받아들이는 느낌이 일치되

38) 최태영, 앞의 책, 129쪽.

어야만, 비로소 훌륭한 글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글을 써야 할 것이고, 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정서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정서법이 사회적 표기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정서법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특히 그중에서도 문장부호에 있어서 그러하다. 문장부호가 글을 쓸 때뿐만 아니라, 글을 읽을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맞게 올바른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바른 글이라 할 수 없다.

본고는 독일어와 한국어 문장부호의 올바른 이해를 목적에 두고 콤마/쉼표를 중심으로 그 기능과 용법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양국어의 콤마와 쉼표 용법의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문장부호 해설집에서는 한국어의 쉼표가 필수적인 문장부호가 아니고 글을 쓰는 사람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39] 이는 한국어의 쉼표 규정 대부분이 문체적, 의미론적 원칙에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에 독일어의 콤마 규칙은 한국어에서와는 달리 통사론적(문법적), 의미론적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콤마 사용규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어 특유의 통사와 문법 구조 및 개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독일어에서는 콤마의 사용유무가 의미 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의 쉼표는 그 용법에 대한 특별한 규칙의 제약이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독일어에서는 콤마에 대한 규칙과 제약이 있고, 일부 규칙은 글쓴이의 재량에 따라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규칙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의미가 달라지거나 비문법

39) 국립국어원, 앞의 책, 31쪽 참고.

적 문장이 되는 경우가 있다.

비록 본고에서는 콤마/쉼표에 대한 고찰로 그쳤지만 향후 더 많은 문장부호로 확대하여 종합적인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문장부호를 언어 대조의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외국어 교육과 번역학의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장부호의 번역전략을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실제 번역교육 및 번역 실무에도 적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문장부호 해설』, 생각쉼표 & 휴먼컬처아리랑, 2015.

김주미, 「통일시대의 문장부호 –‘;’를 쓰십니까?–」, 『한말연구』 제11호, 한말연구학회, 2002, 99–132쪽.

서정욱, 『국어 정서법의 이론과 실제』, 문창사, 1998.

이익섭, 「국어문장부호의 기능」, 『冠嶽語文硏究』 第21輯, 1996, 19–40쪽.

이재호, 「독일어 문장부호의 위계성과 수축규칙」, 『독일어문학』 제46집, 한국독일어문학회, 2009, 299–321쪽.

전경재, 「독일어의 종결부호와 구분부호」,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제13집, 한국독일어교육학회, 2003, 209–221쪽.

정동규, 『독일정서법의 성립과 발전』, 담론사, 1997.

최태영, 『한글 맞춤법 강해』,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5

한학성, 『영어 구두점의 문법』, 태학사, 2012.

Baudusch, Renate(1981/1984): “Prinzipien der deutschen Interpunktion” In: *Texte zur Geschichte der deutsche Interpunktion und ihrer Reform 1462–1983*. Hrsg. von Burckhard Garbe. Hildesheim/Zürich/New York 1984 (= GermL 4–6/83), S. 327–328.

Dies.: *Untersuchungen zu einer Reform der deutschen Orthographie auf dem*

Gebiet der Interpunktion. In: Sprach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en zu einer Reform der deutschen Orthographie. Berlin 1981 (= Linguistische Studien 83/II), S. 216–323.

Dies.: *Zeichensetzung. klipp & klar. Funktion und Gebrauch der Satzzeichen verständlich erklärt*. Gütersloh/München 2000.

Besch, Werner: "Zur Entwicklung der deutschen Interpunktion seit dem späten Mittelalter" In: *Interpretation und Edition deutscher Texte des Mittelalters: Festschrift für John Asher zum 60 Geburtstag*. Hrsg. von Kathryn Smits/Werner Besch/Victor Lange. Berlin 1981.

Bieling, Alexander: *Das Princip der deutschen Interpunktion nebst einer übersichtlichen Darstellung ihrer Geschichte*. Berlin 1880, S. 16–37.

Duden. *Die deutsche Rechtschreibung*. 25., völlig neu bearbeitete und erweiterte Auflage. Hrsg. von der Dudenredaktion. Auf der Grundlage der aktuellen amtlichen Rechtschreibregeln. Dudenverlag. Mannheim, Leipzig, Wien, Zürich 2009.

Günther, Hartmut: "'... und hält den Verstand an' – Eine Etüde zur Entwicklung der deutschen Interpunktion 1522–1961" In: *Deutsche Grammatik in Theorie und Praxis*. Hrsg. von Rolf Thieroff ... Tübingen: Neimeyer 2000.

Höchli, Stefan: *Zur Geschichte der Interpunktion des Deutschen. Eine kritische Darstellung der Lehrschriften von der 2. Hälfte des 15. Jahrhunderts bis zum Ende des 18. Jahrhunderts*. Berlin/New York 1981 (= Studia linguistica Germanica 17).

Internationaler Arbeitskreis für Orthographie (Hrsg.): *Deutsche Rechtschreibung. Regeln und Wörterverzeichnis. Vorlage für die amtliche Regelung*. Tübingen 1995.

Jägel, Wolf–Dietrich: *Der Weg zur sicheren Zeichensetzung*. Paderborn 1981.

Jansen–Tang, Doris: *Ziele und Möglichkeiten einer Reform der deutschen Orthographie seit 1901. Historische Entwicklung, Analyse und Vorschläge zur Veränderung der Duden–Norm,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Groß- und Kleinschreibung und Interpunktion. Frankfurt a. M../Bern/New York/Paris 1988 (= Europäische Hochschulschriften Bd. 1033).

Müller, Johannes: *Quellenschriften und Geschichte des deutschsprachlichen Unterrichts bis zur Mitte des 16. Jahrhunderts*. Gotha 1882 (Reprint Darmstadt 1969).

Munske, Horst Haider: *Lob der Rechtschreibung*, Verlag C. H, München 2005. 이진희 옮김,『독일어 맞춤법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2008.

Primus, Beatrice: "Satzbegriff und Interpunktion" In: Gerhard Augst et al.(Hrsg.): *Zur Neuregelung der deutschen Orthographie. Begründung und Kritik*. Tübingen 1997, S. 463-488.

Stang, Christian und Steinhauer, Anja(Hrsg.): *Duden. Komma, Punkt und alle anderen Satzzeichen. Mit umfangreicher Beispielsammlung*. 5., neu bearbeitete Auflage. Mannheim 2007.

Waumans, Wim: *Zur Problematik der Kommasetzung im heutigen Deutsch*. Duisburg: Linguistic Agency University of Duisburg 1993.

Zollinger, Max: *Sinn und Gebrauch der Interpunktion*. Zürich 1940.

The Chicago Manual of Style, 15th edition 2003.

Internet-Quelle

https://www.duden.de/rechtschreibung/erstens (Stand: 30.10.2018)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German and Korean Punctuation Marks

Focussing on the German and Korean punctuation mark ‘,’

Lie, Zae Ho

Punctuation marks, like letters, are components of writing system. They are also a series of writing signs which enable readers to understand sentences properly, so that they can fulfill the function of hints on reading comprehension. Punctuation marks in German and Korean, which are currently used, are similar on the formal aspect. For this reason they tend to be used with one-to-one correspondence in translating German texts into Korean. Because each individual punctuation mark in German and Korean can be, however, different in use, we have to analyse their differences in use thoroughly under the comparative perspective. Among the punctuation marks comma plays a critical role in meaning determination as well as in sentence comprehension. In this sense, comma can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punctuation marks. This study aims to find out function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using German and Korean comma. I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ltimately

utilized in learning and teaching German language.

Key Words: comma, punctuation mark, uses of punctuation mark, teaching-learning of foreign language, function of comma

이 논문은 2018년 10월 31일 접수되어 11월 30일 심사를 완료하고 12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습니다.